

베트남 리더의 배경과 특징에 대한 고찰*: 당서기장, 국가주석, 정부수상을 중심으로

Consideration on the backgrounds and feature of Vietnam leaders:
Secretary Generals of the Communist Party, Prime ministers, and Presidents

김 현 재(Kim, Hyun Jae)**

ABSTRACT

Vietnam has acquired independence and Communist revolution from long-time struggle with world powers, because it had leaders who could integrate its people and clearly show the way to its goals.

Vietnamese leaders have succeeded in attaining independence, unification, and establishment of a socialist country since they led Vietnam Revolutionary Youth League, former organization of Vietnam Communist Party in 1925. In addition, they have controlled the society in balance with one-party system regardless of both international and domestic ordeals, such as Western's embargoes, Cambodia invasion, Sino-Vietnamese War, the failure of centrally planned economy system, the collapse of Soviet Union, the employment of Doi Moi, and opening up its market.

This brings up questions about Vietnam's excellent leadership: what kind of features do they have? What elements are required to be selected as leaders?

Thus, this paper examines representative leaders, i.e. former General Secretaries of the Party, Presidents and Prime ministers, and their biological, educational and social backgrounds in order to analyze the success of Vietnamese leaders.

Key Words: Leader, Leadership, Communist Party of Vietnam, General Secretary of the Communist Party of Vietnam, President of Vietnam, Prime Minister of Vietnam

I. 서론

베트남은 세계 역사상 유일하게 2차 세계대전 이후 식민지배 국가와 싸워 스스로 독립을 쟁취한 국가이다. 뿐만 아니라 단기간의 혁명이나 쿠데타로 공산주의 혁명을 달성한 여타 사회주의국가들과는 달리 세계열강들과 50여 년간 끊임없는 투쟁으로 공산주의 혁명을 달성한 국가이기도 하다. 베트남이 이 같은 공산주의 혁명을 쟁취할 수 있었던 데에는 무엇보다도 베트남인들의 강인하고 끈질긴 독립심, 저항 정신, 공동체 의식 등의 민족적 역량이 그 원동력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이면에 베트남인들을

* 이 논문은 2013학년도 영산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작성된 것임.

** 영산대학교 아세안비즈니스학과 조교수 (hjkimgogo@ysu.ac.kr)

규합해 민족적 역량을 결집시키고 목표를 향해 이끌었던 리더(leader)¹⁾들이 있었음을 간과할 수 없다.

베트남 리더들은 1925년 베트남공산당²⁾의 전신(前身)인 베트남청년혁명동지회 조직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베트남의 해방과 통일 그리고 사회주의공화국 수립을 이끌었고, 그 이후 서방의 엠바고(embargo), 캄보디아 침공, 중월(中越)전쟁, 중앙계획경제체제의 실패, 구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 체제 붕괴, 도이머이(Doi Moi) 채택, 경제 개방 등의 끊임없는 대내외적 난관 속에서도 공산당 일당체제(one party system)를 굳건히 유지하면서 베트남을 안정적으로 통치해 오고 있다. 이는 베트남 리더들의 탁월한 리더십의 결과로서 그들은 과연 어떤 사람인지? 그들의 리더로서 특징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의 인선(人選)기준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궁금증을 갖게 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트로이카(Troika) 체제로 당(黨)·정(政)·군(軍)을 모두 장악하면서 베트남을 이끌어 온 역대 당서기장, 국가주석, 정부수상 등 최고 리더³⁾들을 베트남의 대표적 리더로서 이 글의 연구대상으로 삼고, 그들의 성분을 분석해 그들의 배경과 특징을 도출해 봄으로써 베트남 리더의 실체를 파악해 보기로 한다. 이를 위해 필자는 관련 국내외 문헌자료는 물론, 베트남 현지에서 발표된 관련 공식 문건과 언론 보도자료, 웹사이트 자료 등을 수집해 그 내용을 종합했다. 그러므로 이 글은 문헌자료의 종합, 분석을 통한 서술적 방법을 취한다.

이 글의 구성은 우선 2장에서 베트남 공산당과 학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베트남 리더의 개념을 검토, 정리하고 그 개념의 배경과 특징을 분석한다. 3장에서는 역대 당서기장, 국가주석, 정부수상 등의 생물학적 배경, 교육 배경, 제도적 배경을 정리, 분석한다. 이어서 4장에서는 2, 3장에서 다룬 내용을 종합해 베트남 리더들의 배경 상 특징과 그들의 인선 기준을 정리, 고찰한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각 장에서 다룬 내용을 종합해 그 내용을 근거로 차기 베트남 최고 리더 3인을 예상해 보고, 향후 베트남 리더의 배경과 특징 등의 변화 또한 예상해 보는 한편, 베트남 리더의 배경과 인선 등에 있어서 문제점을 제시한다.

II. 베트남 리더 개념 정의

베트남에서는 리더를 ‘응으어이 란 다오(nguoì lãnh đạo)’로 부른다. 이 용어가 갖는

1) 이글에서 ‘리더’라는 용어는 ‘정치적 권력을 소유하면서 국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를 뜻하는 ‘정치리더’의 의미로 사용한다.

2) 1930년 2월 베트남공산당으로 창당돼 같은 해 10월 27일 인도차이나공산당으로 개칭된 후 1945년 11월 해체됐다가 그 후 1951년 2월 베트남노동당으로 재발족 됐으며 베트남 통일 이듬해 1976년에 또 다시 베트남공산당으로 당명(黨名)이 개칭됐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당명(黨名)이 초래할 수 있는 혼란을 고려해 시대별 인도차이나공산당, 베트남노동당을 별도 표기하지 않고 시대구분 없이 베트남공산당으로 일괄 표기한다.

3) 이글에서 ‘최고 리더’라는 용어는 ‘당서기장, 국가주석, 정부수상 등 3인’의 의미로 사용한다.

사전적 의미는 ‘주장, 노선을 제시하고, 정치, 사회, 문화적 목적으로 운동을 조직하고 군중을 동원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Nguyen Nhu Y 1998, 979)이다. 사전적 의미 이외에 리더는 주로 베트남 정치가들에 의해 그 개념이 정의됐는데 우선, 도꾸옥삼(Do Quoc Sam 2007)은 리더란 ‘길고 폭 넓은 안목으로 최종 목표와 그것을 향한 노선을 제시하고 그에 따라 군중을 이끌어 가는 사람’으로 정의했다. 베트남 공산당 중앙이론위원회(Hoi dong Ly luan Trung uong Dang cong san Viet Nam) 부위원장 부반히엔(Vu Van Hien 2007)은 리더란 ‘집단을 관리하는 기능과 집단의 활동을 조직하는 기능을 공식적으로 부여 받은 사람’, ‘추구하는 목적을 제시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집단을 이끌고 조종하는 사람’, ‘한 무리 속 구성원 개개인 간의 상관관계를 이해할 줄 알고, 그 동력을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 촉진에 이용할 줄 아는 사람’ 등 세 가지로 개념 정의했다. 한편, 베트남의 국부(國父) 호찌민(Ho Chi Minh)은 리더를 ‘올바른 문제 결정’, ‘올바른 조직과 실천’, ‘올바른 관리와 통제’, ‘올바른 인선과 인물 교체’ 등 네 가지를 실현할 수 있는 사람’으로 개념 정의했다.(Nguyen Sy Nong 2007, 15)

전술한 베트남 리더에 대한 개념 정의들을 종합해보면 그 초점이 지도자와 추종자 간의 관계 그리고 리더 개인의 자질이나 권위에 집중돼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베트남의 리더는 ‘결정하는 자’이고, 인민은 ‘리더의 결정에 따르는 자’로 보는 권위주의적 리더(authoritarian style of leader)의 개념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베트남의 리더는 ‘구성원들의 활동을 기획, 지시, 조직화하고 통제, 조정하며 과업 목표를 설정해 주는 사람’이고 인민은 ‘리더로부터 지시를 받는 사람들’로 보는 지시적 리더(directive leader)의 개념도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베트남 리더가 권위주의적, 지시적 리더의 개념을 강하게 띠게 된 것은 첫째, 전통적 유교사상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의 전통적 유교사상에 따르면 황제는 ‘하늘의 위임(Mandate of Heaven)을 받은 자’로서 황제는 ‘백성을 통치하고’, 백성은 ‘황제의 명령에 따는 것’이 황제와 백성 상호 간 본분과 도리였다. 이는 곧 베트남의 리더십(leadership)과 팔로어십(followership)의 근간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베트남 전통 윤리사상의 기초인 ‘꾸언꾸언(Quan Quan, 君君), 턴턴(Than Than, 臣臣), 푸푸(Phu Phu, 父父), 뚜뚜(Tu Tu, 子子)’⁴⁾라는 여덟 자는 베트남의 리더에 대한 개념과 그 근본을 반영하고 있다.(Pham Thai Viet 2004, 51)

둘째, 외세에 대한 오랜 투쟁의 역사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인들은 기원전 111년 한(漢)나라의 지배로 시작된 1천년 이상의 중국 북속시대(北屬時代)로부터 사회주의공화국 수립에 이르기까지 외세와 끊임없이 투쟁하며 국가와 민족이라는 대의명분 앞에서 무서울 정도로 결집했다.(조재현 외 2003, 73-74) 장구한 투쟁의 역사는 베트남인들이 리더와 팔로어로서 상호 강한 유대감을 갖게 했고, 그 투쟁사가 탄생시킨 걸출

4) 논어의 안연편(顔淵篇)에서 제경공(齊景公)이 정치에 대한 물음에 대한 공자의 대답. 즉,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부모는 부모답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는 말.(Bo giao duc va dao tao 2004, 11)

한 영웅들과 그들의 탁월한 영도력은 베트남인들로 하여금 리더와 리더십에 대한 강한 충성심과 복종심 또한 갖게 했다.

셋째, 공산당 일당체제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공산당은 1930년 창당 이후 오늘날까지 독립, 해방, 남북 분단, 통일, 사회주의공화국 수립, 경제 개방 등 일련의 과정에서 권력의 중앙부터 하부까지 모든 국가조직과 인민을 장악해 왔다. 베트남공산당은 ‘당이 영도하고, 국가가 관리하고, 인민이 주인 된다(Dang lanh dao, Nha nuoc quan ly, Nhan dan lam chu).’(Nguyen Khanh 2007, 46)는 구호로써 ‘베트남의 리더는 공산당임’을 공식 천명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공산당 일당체제에서 유일한 리더 집단인 베트남공산당은 자신들의 주장에 반대하는 어떠한 다른 집단도 용납하지 않는다. 따라서 베트남 리더는 베트남의 전통 사상, 역사, 국가 체제 등에 기인한 가부장적, 카리스마적, 관료적 리더십과 그에 따라 형성된 팔로어십을 바탕으로 한, 권위주의적, 지시적 리더의 개념을 강하게 내재하고 있다.

III. 베트남 리더의 배경

1. 생물학적 배경

1) 성별 및 출신민족

역대 당서기장, 국가주석, 정부수상 총 30명의 성별, 출신민족을 살펴보면 전원이 남성이며, 농득마인(Nong Duc Manh) 1명을 제외한 29명이 낌(Kinh)족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낌족 남성이 리더로서 베트남을 통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베트남 전체 인구의 약 51%와 약 13%를 여성과 소수민족이 차지하고 있음을 볼 때, 최고 리더 인선에 있어서 성별, 민족별 인구 비례에 의한 대표성은 주요 고려사항이 아님을 알 수 있다.

2) 연령 및 세대

<표 1>에서 우선, 베트남공산당 창당 초기 1930년~1940년 기간 중 임명된 당서기장들 5명의 임명 당시 연령을 살펴보면 26~33세의 젊은 연령을 보인다. 이는 당시 공산당의 독립운동과 혁명 활동이 주로 젊은 당원들을 중심으로 전개됐기 때문이다.⁵⁾ 또한

5) 호찌민은 1925년 6월 베트남 최초의 공산주의 단체이자 훗날 베트남공산당의 전신인 ‘베트남 청년혁명동지회(Viet Nam Thanh Nien Cach Mang Dong Chi Hoi)’, 약칭, ‘청년(Thanh Nien)’을 조직해 많은 젊은이들을 당원으로 흡수하고 쩌꾸, 레홍퐁 등을 비롯한 유능한 젊은이들을 모스크바의 동방노동자대학에 유학 보내 혁명요원 훈련을 시켰다. 당시 ‘청년’에 가입

당시 쩌꾸(Tran Phu), 레홍풍(Le Hong Phong), 하취땀(Ha Huy Tap), 응웬반끄(Nguyen Van Cu) 등 4명의 서기장들이 재임 중 프랑스 식민정부에 체포, 수감돼 병사(病死)하거나 사형 당함⁶⁾으로써 당서기장 교체가 빈번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기간 중 당서기장들의 재임 기간은 비교적 짧다.

<표 1> 역대 당서기장의 세대, 생년월일, 사망일, 임명당시 연령, 재임기간

| 기수 | 성명 | 세대 | 생년월일~사망일 (당시 연령) | 임명 당시 연령 | 재임 기간 (연월수) |
|----|-------|----|--------------------------------|-------------|--------------------------------------|
| 1 | 쩌꾸 | 1 | 1904.05.01~1931.09.06 (27세) | 26세 | 1930.10.27 ~1931.09.06(11개월) |
| 2 | 레홍풍 | 1 | 1902.09.06~1942.09.06 (40세) | 33세 | 1935.03.31 ~1936.07.26(1년 4개월) |
| 3 | 하취땀 | 1 | 1906.04.24~1941.08.28 (35세) | 30세 | 1936.07.26 ~1938.03.30(2년 6개월) |
| 4 | 응웬반끄 | 1 | 1912.07.09~1941.08.28 (29세) | 26세 | 1938.03.30 ~1940.08.28(2년 5개월) |
| 5 | 쯔엉썬 | 1 | 1907.02.09~1988.09.30 (81세) | 33세 | 1940.11.09 ~1945.11.11(5년) |
| 6 | 호찌민 | 1 | 1890.05.19~1969.09.02 (79세) | 66세 | 1951.02.19 ~1969.09.02(18년 7개월) |
| 7 | 레주언 | 1 | 1907.04.07~1986.07.10 (79세) | 62세 | 1969.09.10 ~1986.07.10(16년10개월) |
| 8 | 쯔엉썬 | 1 | 1907.02.09~1988.09.30 (81세) | 79세 | 1986.07.14 ~1986.12.18(5개월) |
| 9 | 응웬반린 | 2 | 1915.07.01~1998.04.27 (82세) | 71세 | 1986.12.18 ~1991.06.27(5년 6개월) |
| 10 | 도므어이 | 2 | 1917.02.02~현재(96세) | 74세 | 1991.06.27 ~1997.12.29(6년 6개월) |
| 11 | 레카피에우 | 3 | 1931.12.27~현재(82세) | 66세 | 1997.12.29 ~2001.04.22(3년 4개월) |
| 12 | 농득마인 | 4 | 1940.09.11~현재(73세) | 61세 | 2001.04.22 ~2011.01.19(9년 9개월) |
| 13 | 응웬푸쑹 | 4 | 1944.04.14~현재(69세) | 67세 | 2011.01.19 ~현재(2년 3개월) |

젊은 연령의 당서기장이 선출되던 추세는 공산당의 막후 실권자 호찌민이 1951년 2월, 66세에 직접 당서기장 직을 맡고 장기 집권함으로써 그로부터 고령의 당서기장이 선출되는 추세로 급반전됐다. 호찌민이 1969년 9월 2일 79세로 사망할 때까지 약 18년 7개월 간 재임함으로써 1세대⁷⁾의 자연 연령이 증가했고, 그 결과, 레주언(Le Duan)은

한 인물들은 주로 젊은이들이었기 때문에 과격한 경향을 띠었다.(유인선 2003, 339-340)

6) 초대 당서기장 쩌꾸는 1931년 4월 19일 사이공에서 혁명 활동 수행 중 체포, 수감된 후 1931년 9월 6일 병사했고, 레홍풍은 1940년 2월 6일 사이공에서 체포, 수감된 후 1942년 9월 6일 병사했다. 하취땀은 1938년 5월 1일 사이공에서 체포된 후 1941년 8월 28일 사형 당했고, 응웬반끄 역시 1940년 6월 사이공에서 체포돼 1941년 8월 28일 사형 당했다.

62세에 비로소 당서기장 직을 승계할 수 있었다. 더구나 레주언 역시 1986년 7월, 79세로 사망할 때까지 약 16년 10개월 간 장기 집권함으로써 1세대의 자연 연령을 더욱 증가시켰고, 그 결과 쩌엥찐(Truong Chinh)⁸⁾은 무려 79세 때 당서기장에 선출됐다. 당시 1세대의 연령은 이미 80대에 접어들었으므로 그 이후 곧 바로 2세대 71세의 응웬반린(Nguyen Van Linh)으로 세대교체가 이뤄짐으로써 당서기장의 연령이 다소 낮춰졌으나, 응웬반린 이후 같은 2세대 도므어이(Do Muoi)가 74세에 당서기장 직을 승계함으로써 다시 연령이 증가했다.

그 이후 3세대 레카피에우(Le Kha Phieu)가 66세에 당서기장 직을 승계하는 세대교체가 이뤄졌고 당서기장의 연령은 70대에서 60대로 낮춰졌다. 특히, 레카피에우 이후 4세대 61세의 농득마인(Nong Duc Manh)으로 세대교체가 곧바로 이뤄짐으로써 당서기장의 연령은 60대 초반까지 낮춰졌다. 여기에는 레카 피에우 당서기장의 비교적 짧은 재임기간도 한몫했다. 하지만 농득마인의 재임기간이 약 9년 9개월로 다소 장기화되면서 4세대의 자연 연령이 증가했고, 그 후 계속해서 같은 4세대 응웬푸쑹(Nguyen Phu Trong) 67세에 당서기장 직을 승계함으로써 당서기장의 연령은 다시 증가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1997년 9월 이후 오늘날까지 약 16년간 3, 4세대 당서기장의 임명 당시 연령은 60대 초중반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표 2>의 역대 국가주석들의 임명 당시 연령을 살펴보면 초대 국가주석 호찌민 직 후 급격히 고령화됐는데, 이는 호찌민이 1945년 9월, 55세에 초대 국가주석 직을 맡은 후 1969년 9월 2일 79세에 사망 때까지 무려 24년 간 재임함으로써 1세대의 자연 연령을 증가시켰기 때문이다. 그 결과, 푼득탕(Ton Duc Thang)은 무려 81세에 차기 국가주석 직을 승계했다. 푼득탕 역시 1980년 3월 30일 91세로 사망 때까지 약 10년 7개월 간 재임했지만 그보다 무려 22세 연하인 70세의 2세대 응웬후토(Nguyen Huu Tho)⁹⁾가 국가주석의 권한을 대행함으로써 국가주석의 연령은 크게 낮춰졌다. 그러나 곧이어 1세대 쩌엥찐과 보찌꽁(Vo Chi Cong)이 각각 74세, 75세에 국가주석 직을 차례로 승계해 총 11년 이상 재임함으로써 2세대의 자연 연령을 증가시켰다. 그 결과, 2세대 레득아인(Le Duc Anh)으로 세대교체가 이뤄질 당시 그의 나이는 이미 72세였다.

- 7) 이 글에서 세대는 정치세대(political generation)를 의미한다. 세대의 구분은 특정한 정치·사회적 사건에 대한 공통의 경험에 따라 공산당 입당 시기를 그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1세대는 1925~1935년 기간 중 ‘공산당 창당’을 주도한 인물들로 호찌민, 푼득탕, 레주언, 쩌엥찐, 팜반동, 팜홍 등으로 보고, 2세대는 1935~1945년 ‘남부베트남봉기’, ‘8월 혁명’ 등 ‘항불투쟁’ 시기에 입당해 활동한 인물들로 응웬반린, 도므어이, 보반끼엣, 레득아인 등으로 본다. 3세대는 1946~1955년 ‘제1차 인도차이나전쟁’, ‘남북분단’ 기간 중 입당해 활동한 레카피에우, 쩌득르엉, 판반카이 등으로 보고, 4세대는 1956~1975년 남북분단 이후 ‘제2차 인도차이나전쟁’, ‘남북통일’ 기간 중 입당해 활동한 농득마인, 응웬민찌엣, 응웬푸쑹, 쩌엥떤상, 응웬떤중 등으로 본다.
- 8) 쩌엥찐은 이미 1940년 11월 09일부터 1945년 11월 11일까지 5년 간 당서기장을 맡았으나 레주언 사망 후 당 중앙위 특별회의에서 재차 당서기장에 선출됐고 5개월 후 정계 은퇴했다.
- 9) 응웬후토는 푼득탕 사망 당시 국가 부주석이었으나 푼득탕 사망 후 권력의 공백을 막기 위해 차기 당서기장을 선임할 때까지 약 1년 3개월 동안 당서기장 권한대행을 맡았다.

<표 2> 역대 국가주석의 세대, 생년월일·사망일, 임명당시 연령, 재임기간

| 기수 | 성명 | 세대 | 생년월일~사망일 (당시 연령) | 임명 당시 연령 | 재임기간 (연월수) |
|----|-------|----|--------------------------------|-------------|------------------------------------|
| 1 | 호찌민 | 1 | 1890.05.19~1969.09.02 (79세) | 55세 | 1945.09.02 ~1969.09.02(24년) |
| 2 | 퐁득탕 | 1 | 1888.08.20~1980.03.30 (91세) | 81세 | 1969.09.22 ~1980.03.30(10년 7개월) |
| 3 | 응웬흐우토 | 2 | 1910.07.10~1996.12.24 (86세) | 70세 | 1980.03.30 ~1981.07.04(1년3개월) |
| 4 | 쯔엉찐 | 1 | 1907.02.09~1988.09.30 (81세) | 74세 | 1981.07.04 ~1987.06.18(6년) |
| 5 | 보찌공 | 1 | 1912.08.07~2011.09.08 (99세) | 75세 | 1987.06.18 ~1992.09.22(5년 3개월) |
| 6 | 레득아인 | 2 | 1920.12.01~현재(93세) | 72세 | 1992.09.23 ~1997.09.24(5년 1개월) |
| 7 | 쩐득르엉 | 3 | 1937.05.05~현재(76세) | 60세 | 1997.09.24 ~2006.06.26(8년9개월) |
| 8 | 응웬민찌엣 | 4 | 1942.10.08~현재(71세) | 64세 | 2006.06.27 ~2011.07.25(5년) |
| 9 | 쯔엉떤상 | 4 | 1949.01.21~현재(64세) | 62세 | 2011.07.25 ~현재(1년 8개월) |

이처럼 임명 당시 연령이 70대 이상 고령을 유지하던 추세는 레득아인이 약 5년 1개월간 재임한 후 그보다 무려 18세 연하인 당시 60세의 3세대 쩐득르엉(Tran Duc Luong)으로 세대교체가 이뤄지면서 끝이 났다. 그러나 그 후 쩐득르엉의 재임 기간이 약 8년 9개월로 다소 길어지면서 4세대 64세의 응웬민찌엣(Nguyen Minh Triet)으로 세대교체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임명 당시 연령은 60세에서 64세로 오히려 4세 더 증가했다. 그 후 4세대 응웬민찌엣이 약 5년 간 재임하고 4세대 62세의 쩔엉떤상에게 국가주석 직을 물려줌으로써 1997년 9월 이후 현재까지 약 16년 간 3, 4세대의 국가주석 임명 당시 연령은 60대 초반을 유지하고 있다.

<표 3>을 살펴보면 호찌민이 55세에 초대 정부수상을 맡아 10년 1개월 간 재임한 후 같은 세대 팜반둥에게 정부수상 직을 물려줬으나 호찌민보다 16세 연하인 팜반둥의 당시 연령은 49세에 불과했으므로 결과적으로 연소화가 이뤄졌다.¹⁰⁾ 그러나 팜반둥이 그로부터 81세까지 무려 약 32년 간 장기 집권함으로써 팜흥(Pham Hung)은 75세의 비교적 고령에 정부수상 직을 승계했고, 그 결과, 팜흥은 재임 약 9개월 만에 노환에 의한 심장마비로 급사하고 말았다. 당시 제1부수상이던 66세의 보반끼엣(Vo Van Kiet)이 약 6개월 간 정부수상 권한대행을 맡고, 곧바로 71세의 도프어이에게 정부수상 직

10) 팜반둥은 1926년 20세에 중국 광저우로 가서 호찌민에게 사회주의 교육을 받고 사제(師弟)의 관계를 맺었다. 그 후, 호찌민과 함께 베트남공산당을 주도했다.

승계가 이뤄졌으나 정부수상의 연령은 여전히 70대를 유지했다. 그로부터 약 3년 3개월 후 69세의 보반끼엣이 다시 정부수상 직을 승계해 6년 1개월 간 재임한 후 3세대 64세의 판반카이(Phan Van Khai)로 세대교체 함으로써 임명 당시 연령은 60대 중반으로 다소 낮춰졌다. 그 후, 판 반 카이가 약 9년 9개월 간 비교적 장기간 재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4세대 57세의 응웬똌중(Nguyen Tan Dung)으로 세대교체가 이뤄짐으로써 정부수상의 임명 당시 연령은 50대로 크게 낮춰졌다.

<표 3> 역대 정부수상의 세대, 생년월일·사망일, 임명당시 연령, 재임기간

| 기수 | 성명 | 세대 | 생년월일~사망일 (당시 연령) | 임명 당시 연령 | 재임기간 (연월수) |
|----|------|----|----------------------------|-------------|------------------------------------|
| 1 | 호찌민 | 1 | 1890.05.19~1969.09.02(79세) | 55세 | 1945.08.17 ~1955.09.20(10년 1개월) |
| 2 | 팜반동 | 1 | 1906.03.01~2000.04.29(94세) | 49세 | 1955.09.20 ~1987.06.18(32년) |
| 3 | 팜흥 | 1 | 1912.06.11~1988.03.10(76세) | 75세 | 1987.06.22 ~1988.03.10(9개월) |
| 4 | 보반끼엣 | 2 | 1922.11.23~2008.06.11(85세) | 66세 | 1988.03.10 ~1988.06.22(6개월) |
| 5 | 도르어이 | 2 | 1917.02.02~현재(96세) | 71세 | 1988.06.22 ~1991.08.08(3년 3개월) |
| 6 | 보반끼엣 | 2 | 1922.11.23~2008.06.11(85세) | 69세 | 1991.08.08 ~1997.09.25(6년 1개월) |
| 7 | 판반카이 | 3 | 1933.12.25~현재(80세) | 64세 | 1997.09.25 ~2006.06.27(9년 9개월) |
| 8 | 응웬똌중 | 4 | 1949.11.17~현재(64세) | 57세 | 2006.06.27 ~현재(6년 8개월) |

3) 출신지

<표 4>를 살펴보면 북부 출신이 13명 중 9명(69%)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4명(31%)은 전부 북중부 출신이다. 베트남에서는 통상적으로 북중부와 그 이북을 북부로, 남중부와 그 이남을 남부로 베트남을 양분¹¹⁾하는데 이러한 경우, 역대

11) 베트남 정부는 베트남을 동북, 서북, 홍(Hong)강(江)삼각주, 북중부, 남중부, 서부고원, 동남부, 메콩(Mekong)강(江)삼각주 등 8개 지역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지리적으로는 크게 북부, 중부, 남부로 구분하는데 북부는 하노이(Ha Noi)를 중심으로 동북부(Dong Bac bo) 4개 성(省), 서북부(Tay Bac bo) 11개 성, 홍강삼각주(Dong bang song Hong) 9개 성 등 총 24개 성을 포함하고, 중부는 트어 티엔 후에(Thua Thien-Hue)성을 포함한 그 이북의 북중부(Bac Trung bo) 6개 성, 그리고 쩡남(Quang Nam)성을 포함한 그 이남의 남중부(Nam Trung bo) 5개 성을 비롯해 서부고원(Tay Nguyen) 5개 성 등 총 16개 성을 포함한다. 남부는 호찌민(Ho Chi Minh)시(市)를 중심으로 동남부(Dong Nam bo) 7개 성, 메콩강 삼각주(Dong bang song Mekong) 12개 성 등 총 19개 성을 포함한다. 이 글에서는 통례에 따라 북중부와 그 이

당서기장 13명 전원은 북부 출신이다.

<표 4> 역대 당서기장의 출신지

| 기수 | 성명 | 세대 | 출신지 | 기수 | 성명 | 세대 | 출신지 |
|----|------|----|-------------------|----|-----------|----|--------------------|
| 1 | 쩐푸 | 1 | 북부 하띤(Ha Tinh) | 8 | 쯔엥찐 | 1 | 북부 남딘(Nam Dinh) |
| 2 | 레홍퐁 | 1 | 북중부 응에안(Nghe An) | 9 | 응웬반린 | 2 | 북부 흥옌(Hung Yen) |
| 3 | 하취텡 | 1 | 북부 하띤(Ha Tinh) | 10 | 도므어이 | 2 | 북부 하노이(Ha Noi) |
| 4 | 응웬반끄 | 1 | 북부 박닌(Bac Ninh) | 11 | 레카피에 우 | 3 | 북중부 타인화(Thanh Hoa) |
| 5 | 쯔엥찐 | 1 | 북부 남딘(Nam Dinh) | 12 | 농득마인 | 4 | 북부 박칸(Bac Can) |
| 6 | 호찌민 | 1 | 북중부 응에안(Nghe An) | 13 | 응웬푸쥔 | 4 | 북부 하노이(Ha Noi) |
| 7 | 레주언 | 1 | 북중부 광찌(Quang Tri) | | | | |

<표 5>를 살펴보면 남부 출신이 6명(67%)으로 북부 출신 3명(33%)에 비해 2배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더구나 북부 출신 3명 중 호찌민과 쯔엥찐 등 2명은 공산당 창당과 베트남민주공화국 수립의 주역으로서 당서기장, 국가주석 등을 겸직한 이례적 인물로 이들 2명을 제외하면 북부 출신은 레득아인 1명이 유일하다. 따라서 역대 국가주석은 남부 출신이 차지해왔다고 할 수 있다. 특히, 2세대 레득아인 이후 3, 4세대에서 쯔득르엉, 응웬민찌엣, 쯔엥편상 등 3명의 남부 출신이 계속해서 국가주석 직을 승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 역대 국가주석의 출신지

| 기수 | 성명 | 세대 | 출신지 | 기수 | 성명 | 세대 | 출신지 |
|----|------|----|-----------------------|----|-------|----|---------------------------------|
| 1 | 호찌민 | 1 | 북중부 응에안(Nghe An) | 6 | 레득아인 | 2 | 북중부 트어티엔-후에 (Thua Thien-Hue) |
| 2 | 똥득탕 | 1 | 남부 안장 (An Giang) | 7 | 쯔득르엉 | 3 | 남중부 광응아이 (Quang Ngai) |
| 3 | 응웬후토 | 1 | 남부 롱안 (Long An) | 8 | 응웬민찌엣 | 4 | 남부 빈즈엉 (Binh Duong) |
| 4 | 쯔엥찐 | 1 | 북부 남딘 (Nam Dinh) | 9 | 쯔엥편상 | 4 | 남부 롱안(Long An) |
| 5 | 보찌꽁 | 2 | 남중부 광남 (Quang Nam) | | | | |

<표 6>의 역대 베트남 정부수상 총 7명¹²⁾의 출신지를 살펴보면 남부 출신이 5명(71%)¹³⁾으로 북부 출신 2명(29%)에 비해 약 2.5배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더구나

북을 북부로, 남중부와 그 이남을 남부로 지역 구분한다.

12) 보반끼엣은 2차례 정부수상을 맡았기 때문에 역대 베트남 정부수상은 총 7명이다.

13) 남부 출신의 보반끼엣은 2차례 정부수상을 맡았기 때문에 역대 정부수상 중 남부 출신은 총

북부 출신 2명 중 초대 국가주석과 초대 정부수상을 겸직한 호찌민을 제외하면 북부 출신은 도므어이 1명이 유일하다. 따라서 역대 정부수상은 남부 출신이 차지해왔다고 할 수 있으며, 남부 출신 5명 중에서는 팜흥, 보반끼엣, 응웬떤중 등 메콩강 삼각주 지역 출신이 3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특히, 2세대 도므어이 이후 3, 4세대에서는 보반끼엣, 판반카이, 응웬떤중 등 3명의 남부 출신이 계속해서 정부수상 직을 승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6> 역대 정부수상의 출신지

| 기수 | 성명 | 세대 | 출신지 | 기수 | 성명 | 세대 | 출신지 |
|----|------|----|--------------------------|----|------|----|------------------|
| 1 | 호찌민 | 1 | 북중부 응에안(Nghe An) | 5 | 도므어이 | 2 | 북부 하노이(Ha Noi) |
| 2 | 팜반동 | 1 | 남중부 광응아이 (Quang Ngai) | 6 | 보반끼엣 | 2 | 남부 빈롱(Vinh Long) |
| 3 | 팜흥 | 1 | 남부 빈롱(Vinh Long) | 7 | 판반카이 | 3 | 남부 사이공(Sai Gon) |
| 4 | 보반끼엣 | 2 | 남부 빈롱(Vinh Long) | 8 | 응웬떤중 | 4 | 남부 까마우(Ca Mau) |

2. 교육배경

<표 7>을 살펴보면 무학자 6명, 고교 중퇴자 1명, 특수학교¹⁴⁾수학자 4명, 대졸자 1명, 박사학위 소지자 1명 등으로 전반적으로 학력이 낮다. 대졸 이상 고학력자는 4세대 농득마인, 응웬푸 쯡 등 2명으로 전체의 17%에 불과하다. 이는 1, 2세대들이 프랑스 식민지배 당시 태어나 이른 나이에 혁명 활동을 수행했거나 또는 그러한 과정에서 프랑스 식민당국에 체포, 수감됨으로써 정규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실례로 응웬반끄는 15세 때 혁명 활동을 시작한 후 18세에 프랑스군에 체포돼 6년 간 수감됐고, 쯡영찐은 18세에 혁명 활동을 시작했고 23세에 프랑스군에게 체포돼 6년간 수감됐다. 응웬반린은 15세에 혁명 활동을 수행하던 중 체포돼 6년 간 수감됐다.

한편, 3세대 레카피에우는 14세에 혁명 활동을 시작한 후 1949년 18세에 인도차이나 공산당에 가입, 그 이듬해 비엠티(Viet Minh, 越盟)군(軍)에 입대, 군복무를 시작했으므로 군사 활동 경력 이외 학력 및 수감 경력이 없다. 특히, 4세대 농득마인과 응웬푸쯡 등 2명은 프랑스 식민지 해방 무렵에 태어나 해방 후 북베트남의 베트남민주공화국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된 정세 속에서 구소련 유학 등 학업 수행의 기회를 누릴 수 있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5명이다.

14) 모스크바 공산대학은 코민테른이 공산주의 운동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해 시기별 1, 3, 4년 기간의 수료 과정으로 운영됐기 때문에 특수학교로 구분한다.

<표 7> 역대 당서기장의 학력 및 수감경력

| 기수 | 세대 | 성명 | 학력 | 수감 경력(기간/체포 당시 연령) |
|----|----|-------|------------------------------|--|
| 1 | 1 | 쩐푸 | 모스크바공산대학 수료 | 유(1931.04.19~09.06/27세) |
| 2 | 1 | 레홍퐁 | 모스크바공산대학 수료 | 유(1939.06~12/40세) (1940.02.06~09.06/41세) |
| 3 | 1 | 하취텡 | 모스크바공산대학 수료 | 유(1940.03.30~1941.08.28/34세) |
| 4 | 1 | 응웬반끄 | 무학 | 유(1930~1936/18세) (1940.06~1941.08.28/28세) |
| 5 | 1 | 쯔엥찐 | 고교 중퇴 | 유(1930~1936/23세) |
| 6 | 1 | 호찌민 | 모스크바공산대학 수료 | 유(1942.08.29~1943.09/52세) |
| 7 | 1 | 레주언 | 무학 | 유(1931.04.20~1936/24세) (1940~1945/33세) |
| 8 | 1 | 쯔엥찐 | 고교 중퇴 | 유(1930~1936/23세) |
| 9 | 2 | 응웬반린 | 무학 | 유(1930.05.01~1936/15세) (1941~1945/26세) |
| 10 | 2 | 도므어이 | 무학 | 유(1941~1945/24세) |
| 11 | 3 | 레카피에우 | 무학 | 무 |
| 12 | 4 | 농득마인 | 레닌그라드임업학원 ¹⁵⁾ 졸 | 무 |
| 13 | 4 | 응웬푸쑹 | 소련사회과학아카데미 ¹⁶⁾ 박사 | 무 |

<표 8>을 살펴보면 역대 국가주석 9명의 학력은 무학자 2명, 고교 중퇴자 1명, 특수 학교 수료자 1명, 직업훈련학교 1명, 대졸자 4명 등으로 역대 당서기장들의 학력에 비해 비교적 높다. 이는 국내에서 이른 나이에 혁명 활동을 수행해 무학자가 많은 1, 2세대 당서기장들에 비해 1, 2세대 톤득탕, 응웬후투 등 2명이 각각 국내 직업훈련학교 또는 프랑스에서 대학을 졸업한 후 귀국 해 비로소 혁명 활동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한편, 보찌꽁은 18세에 혁명 활동을 시작했고 레득아인은 고무농장 노동자로 활동하던 중 비엠티군에 입대해 군 복무를 수행했으므로 학력과 수감경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3세대 쩌득르엉은 식민지 해방 이후 1955년 18세의 나이로 월북(越北)한 후 북베트남의 베트남민주공화국에서 안정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었으므로 학업수행이 가능했으며, 4세대 응웬민찌엣과 쩔엥띠상은 식민지 해방 무렵인 1942년과 1949년에 각각 태어나 남베트남의 베트남공화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후 비로소 공산당에 가입, 혁명 활동을 시작했으므로 고학력자가 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쩔엥띠상은 대학 졸업 후 혁명 활동 수행 중 남베트남 베트남공화국 정부에 체포돼 약 2년 간 수감된 경력이 있다.

15) 레닌그라드임업학원은 상트페테르부르크 국가임업기술학원으로 개명됐다.

16) 소련 사회과학아카데미는 당시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 부설 사회과학아카데미였다.

<표 8> 역대 국가주석의 학력 및 수감경력

| 기수 | 세대 | 성명 | 학력 | 수감 경력(기간 / 체포 당시 연령) |
|----|----|-------|--------------------------|---|
| 1 | 1 | 호찌민 | 모스크바공산대학 졸 | 유(1942.08.29~1943.09/52세) |
| 2 | 1 | 똘득탕 | 아시아기계학교 ¹⁷⁾ 졸 | 유(1928~1945/40세) |
| 3 | 2 | 응웬흐우토 | 엑상프로방스법문대 졸 | 유(1950.06~1952.11/40세) (1954~1961/44세) |
| 4 | 1 | 쯔엉 쩐 | 고교 중퇴 | 유(1930~1936/23세) |
| 5 | 1 | 보찌꽁 | 무학 | 유(1943.10~1945.03.09/31세) |
| 6 | 2 | 레득안 | 무학 | 무 |
| 7 | 3 | 쩐득르엉 | 하노이지질개방대 졸 | 무 |
| 8 | 4 | 응웬민찌엣 | 사이공과학대 졸 | 무 |
| 9 | 4 | 쯔엉떤상 | 법학사 | 유(1971~1973/22세) |

<표 9>의 역대 정부수상 7명¹⁸⁾의 학력을 살펴보면 무학자 5명, 특수학교 수료자 1명, 대졸자 1명으로 학력이 전반적으로 매우 낮다. 특히, 대졸 이상 고학력자는 3세대 판반카이 유일하다. 이는 팜반동, 팜흥, 보반끼엣, 도므어이 등 1, 2세대 모두가 10대 중후반부터 혁명 활동을 수행하거나 또는 그 과정에서 프랑스 식민정부에 체포, 수감됨으로써 정규교육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반면, 3세대 판반카이는 1954년 남북 분단 당시 남베트남에서 북베트남 베트남민주공화국으로 월북한 후 구소련에서 유학할 수 있었다. 한편, 4세대 응웬떤중은 1961년 12세에 무장단체인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에 가입해 군복무를 시작했기 때문에 정규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했다.(Thong tan xa Viet Nam-van phong chinh phu 2008, 611)

<표 9> 역대 정부수상의 학력 및 수감경력

| 기수 | 세대 | 성명 | 학력 | 수감 경력(기간 / 체포 당시 연령) |
|----|----|------|------------|---------------------------|
| 1 | 1 | 호찌민 | 모스크바공산대학 졸 | 유(1942.08.29~1943.09/52세) |
| 2 | 1 | 팜반동 | 무 | 유(1929.07~1936/23세) |
| 3 | 2 | 팜흥 | 무 | 유(1930~1945/18세) |
| 4 | 2 | 보반끼엣 | 무 | 무 |
| 5 | 2 | 도므어이 | 무 | 유(1941~1945/24세) |
| 6 | 2 | 보반끼엣 | 무 | 무 |
| 7 | 3 | 판반카이 | 모스크바경제대학 졸 | 무 |
| 8 | 4 | 응웬떤중 | 무 | 무 |

17) 아시아기계학교(Truong Co khi A Chau)는 당시 직업훈련학교로 현재 3년제 전문대학인 카오탕 기술전문대학(Truong Cao dang Ky thuat Cao Thang)으로 개명됐음.

18) 보반끼엣은 정부수상 직을 2회 역임했으므로 역대 총 정부수상은 7명임.

3. 제도적 배경

1) 당력(黨歷)

<표 10>을 살펴보면 응웬반끄, 호찌민 등 2명을 제외¹⁹⁾하고 초대 당서기장 쩌꾸부터 현(現)당서기장 응웬푸쑹까지 입당 연도가 빠른 순서대로 후임 당서기장들이 정렬돼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역대 당서기장들의 세대별 재직 연수는 전반적으로 후임 당서기장으로 갈수록 점차 길어진다. 1세대의 경우, 쩌꾸부터 쯔엥찐까지 총 8번 당서기장이 교체되는 동안 재직 연수는 5년에서 56년으로 길어졌고, 2세대의 경우 역시 응웬반린 50년에서 도므어이 52년으로 조금 길어졌다. 4세대에서도 농득마인에서 응우옌푸쑹으로 교체되면서 37년에서 43년으로 다소 길어졌다.

<표 10> 역대 당서기장의 입당 연도와 재직 연수

| 기수 | 세대 | 성명 | 입당 연도 | 재직 연수 ²⁰⁾ (임명 연도) |
|----|----|-------|-------|---------------------------------|
| 1 | 1 | 쩌꾸 | 1925 | 5년(1930) |
| 2 | 1 | 레홍퐁 | 1925 | 9년(1935) |
| 3 | 1 | 하휘뎀 | 1929 | 6년(1936) |
| 4 | 1 | 응웬반끄 | 1929 | 8년(1938) |
| 5 | 1 | 쯔엥 찐 | 1930 | 10년(1940) |
| 6 | 1 | 호찌민 | 1925 | 25년(1951) |
| 7 | 1 | 레주언 | 1930 | 39년(1969) |
| 8 | 1 | 쯔엥찐 | 1930 | 56년(1986) |
| 9 | 2 | 응웬반린 | 1936 | 50년(1986) |
| 10 | 2 | 도므어이 | 1939 | 52년(1991) |
| 11 | 3 | 레카피에우 | 1949 | 48년(1997) |
| 12 | 4 | 농득마인 | 1963 | 37년(2001) |
| 13 | 4 | 응웬푸쑹 | 1967 | 43년(2011) |

(출처: 베트남공산당 전자신문, <http://dangcongsan.vn>)

19) 응웬반끄의 입당 연도는 하휘뎀보다 빠르지만 그가 1931년 2월 18세에 프랑스 식민정부에 체포돼 1936년 11월까지 약 6년 간 수감됐기 때문에 하휘뎀이 1936년 7월 26일 당서기장에 먼저 임명됐다. 베트남공산당 창당을 주도한 호찌민이 뒤늦게 당서기장을 맡은 것은 그가 1911년 6월 도불(渡佛)한 후 해외에서 베트남 국내 공산당의 활동을 지도하다가 1944년 9월 귀국해 1945년 11월 인도차이나공산당을 해산시키고 1951년 2월 당 명칭을 베트남노동당으로 개칭하고 스스로 당서기장이 됐기 때문이다.

20) 재직연수(在籍年數)는 입당연도부터 당서기장 임명연도까지로 계산함.

<표 11>에 나타난 역대 국가주석들의 입당 연도를 살펴보면 응웬흐우토²¹⁾를 제외하고 초대 국가주석 호찌민부터 현(現)국가주석 쩌엥떤상까지 입당 연도가 빠른 순서대로 정렬돼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1> 역대 국가주석의 입당 연도와 재직 연수²²⁾

| 기수 | 세대 | 성명 | 입당 연도 | 재직 연수 (임명 연도) |
|----|----|-------|-------|------------------|
| 1 | 1 | 호찌민 | 1925 | 20년(1945) |
| 2 | 1 | 똥득탕 | 1930 | 39년(1969) |
| 3 | 2 | 응웬흐우토 | 1949 | 31년(1980) |
| 4 | 1 | 찌엥찐 | 1930 | 51년(1981) |
| 5 | 1 | 보찌공 | 1935 | 52년(1987) |
| 6 | 2 | 레득아인 | 1945 | 47년(1992) |
| 7 | 3 | 쩨득르엥 | 1959 | 38년(1997) |
| 8 | 4 | 응웬민찌엣 | 1965 | 41년(2006) |
| 9 | 4 | 찌엥떤상 | 1969 | 42년(2011) |

(출처: 베트남공산당 전자신문, <http://dangcongsan.vn>)

<표 12>의 역대 정부수상들의 입당 연도를 살펴보면 초대 정부수상 호찌민부터 현(現)정부수상 응웬떤중까지 입당 연도가 빠른 순서대로 후임자들이 정렬돼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역대 정부수상의 재직 연수를 살펴보면 1세대에서 57년까지 증가하다가 4세대에서 39년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이는 세대교체로 인한 연소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21) 응웬흐우토는 1930년 프랑스에서 법률을 공부하고 1933년 귀국한 후, 프랑스 식민법정에서 무고한 사람들을 변호하고 변호사, 엔지니어, 의사, 약사, 교사, 기자 등 지식인들로 하여금 프랑스와 베트남 간 협상을 촉구하는 사이공지식인선언문에 서명토록 하는 등 합법적 독립운동을 전개했다. 이는 당시 그가 공산당 당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로써 변호사라는 특수한 신분을 이용한 합법적 독립운동을 위해 공산당 가입을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고 그 결과, 그의 입당은 1949년으로 미뤄졌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그는 2세대에 속하지만 똥득탕 사후 국가주석 권한대행으로서 권력공백을 막고 1세대 찌엥찐의 국가주석 선출을 이끄는 역할을 맡게 됐다.

22) 재직 연수는 입당 연도부터 국가주석 임명 연도까지로 계산함.

<표 12> 역대 정부수상의 입당 연도와 재직 연수²³⁾

| 기수 | 세대 | 성명 | 입당 시기 (공통경험) | 입당 연도 | 재직 연수 (임명 연도) |
|----|----|------|---|-------|------------------|
| 1 | 1 | 호찌민 | 1925~1930 (베트남공산당 창당) | 1925 | 20년(1945) |
| 2 | 1 | 팜반동 | | 1926 | 29년(1955) |
| 3 | 1 | 팜흥 | | 1930 | 57년(1987) |
| 4 | 2 | 도므어이 | 1931~1945 (8월 혁명/베트남 민주공화국 수립) | 1939 | 49년(1988) |
| 5 | 2 | 보반끼엣 | | 1939 | 52년(1991) |
| 6 | 3 | 판반카이 | 1946~1954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남북분단) | 1950 | 47년(1997) |
| 7 | 4 | 응웬떤중 | 1955~1975 (베트남공화국 수립/ 제2차 인도차이나 전쟁) | 1967 | 39년(2006) |

(출처: 베트남공산당 전자신문, <http://dangcongsan.vn>)

2) 경력

<표 13>의 역대 당서기장 중 1세대 쩌꾸, 레홍퐁, 하위엿, 응웬반끄, 쩌엩찐 등 5명은 프랑스 식민지배 당시 1930년~1940년에 20대 중반 또는 30대 초반의 나이에 당서기장에 임명됐으므로 혁명 활동 이외 경력이 없다. 한편, 호찌민은 1945년 8월 혁명 직후 베트남민주공화국 초대 국가주석과 정부수상을 맡고 그 후 1951년에는 당서기장까지 겸직한 매우 이례적 경력을 갖고 있다.

특히, 레주언 이후 총 7명의 당서기장들 중 쩌엩찐, 도므어이, 농득마인, 응웬푸쑹 등 4명(57%)은 국가주석, 정부수상, 국회의장 중 1개 직책 이상 수행 경력을 갖고 있고, 쩌엩찐, 레카피에우 등 2명을 제외한 5명(71%)은 지방지도자 경력을 갖고 있다. 한편, 군(軍)출신은 레카피에우 1명(14%)에 불과하다.

전술한 역대 당서기장들의 경력을 종합해보면 지방지도자 경력 등이 역대 당서기장들의 주요 경력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가주석, 정부수상을 역임하고 당서기장에 선출된 호찌민을 비롯해 당서기장, 국가주석, 국회의장을 모두 역임하고 또다시 당서기장에 선출된 쩌엩찐²⁴⁾ 그리고 정부수상을 역임하고 당서기장에 선출된 도므어이 등과 같은 이례적 사례도 있다. 특히, 최근 당서기장에 선출된 농득마인, 응웬푸쑹 등 2명의 전·현직 당서기장은 모두 지방 지도자 및 국회의장 등의 경력을 갖고 있음을 볼 때, 향후 당서기장은 지방 지도자, 국회의장 경력을 가진 인물이 선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23) 재직 연수는 입당 연도부터 정부수상 임명 연도까지로 계산함.

24) 쩌엩찐은 1940년 당서기장, 1960년 국회의장, 1981년 국가주석에 선출됐으며, 1986년에는 당서기장에 재차 선출됐으나 그 후 5개월 후 정계 은퇴했다.

<표 13> 역대 당서기장의 경력²⁵⁾

| 기수 | 세대 | 성명 | 주요 경력(임명 연도) |
|----|----|-------|---|
| 1 | 1 | 편푸 | ①공산당 임시중앙위 위원(1930) |
| 2 | 1 | 레홍풍 | ①구소련군 중좌(1930) |
| 3 | 1 | 하취텡 | ①인도차이나 공산당 해외지휘위원장(1935) |
| 4 | 1 | 응웬반꼬 | ①북부상임위원회 위원(1937), ②인도차이나공산당 중앙상임위원(1937) |
| 5 | 1 | 쯔엥찐 | ①인도차이나공산당 선전위원(1930), ②북부위원회 위원(1936) |
| 6 | 1 | 호찌민 | ①국가주석(1945), ②정부수상(1945), ③외교부장관(1946) |
| 7 | 1 | 레주언 | ①남부위원회 당 서기(1946), ②당 중앙위 제1서기(1951), ③호찌민 보좌관(1954) |
| 8 | 1 | 쯔엥찐 | ①당서기장(1940), ②국회의장(1960), ③정부수상(1981) |
| 9 | 2 | 응웬반린 | ①호찌민시 당서기(1976), ②사회주의 개조위원장(1976), ③호찌민시 당서기(1981) |
| 10 | 2 | 도므어이 | ①하남성 당서기(1947), ②하이퐁시 당서기(1955), ③부수상(1969), ④정부수상(1988) |
| 11 | 3 | 레카피에우 | ①캄보디아주둔 베트남군 부사령관(1984), ②군 총정치국장(1991) |
| 12 | 4 | 농득마인 | ①박타이성 성장(1983), ②박타이성 당서기(1986), ③국회의장(1992) |
| 13 | 4 | 응웬푸쑹 | ①공산잡지 편집장(1991), ②하노이 당서기(2000), ③국회의장(2007) |

<표 14> 역대 국가주석의 경력을 살펴보면 우선, 1, 2, 3세대 7명 중 보찌퐁 1명을 제외한 6명은 지방 지도자 경력이 없고, 국가 부주석, 부수상 등의 중앙 경력만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최근 4세대 응웬민찌엣, 쯔엥편상 등 2명의 전·현직 국가주석은 모두 지방 지도자 경력이 있는데 특히, 응웬민찌엣은 중앙 경력 없이 지방 지도자 경력만으로 국가주석에 선출됐다. 더욱이 응웬민찌엣, 쯔엥편상 등 2명의 전·현직 국가주석이 호찌민시 당서기를 역임한 후 국가주석에 선출된 것을 볼 때, 향후 차기 국가주석도 호찌민시 당서기 경력자가 선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25) 역대 당서기장의 경력은 당서기장에 선출되기 전 경력이며, 지방경력은 성급 당서기장 및 성장 등의 성급 지도자 경력, 중앙경력은 중앙 당·정 경력 등임.

<표 14> 역대 국가주석의 경력²⁶⁾

| 기수 | 세대 | 성명 | 주요 경력(임명 연도) |
|----|----|-------|---|
| 1 | 1 | 호찌민 | ①정부수상(1945) |
| 2 | 1 | 똌득탕 | ①남부위원회 당 서기(1945), ②내무부장관(1947), ③국회의장(1955), ④국가 부주석(1960) |
| 3 | 2 | 응웬후토 | ①남부해방민족전선 의장(1962), ②국가 부주석(1976) |
| 4 | 1 | 쯔엥찐 | ①당서기장(1940), ②부수상(1958), ③국회의장(1960) |
| 5 | 1 | 보찌꽁 | ①꽁남-다낭성 당서기(1952), ②남부해방전선 부의장(1961), ③부수상(1976) |
| 6 | 2 | 레득안 | ①캄보디아 주둔 베트남 군사령관(1981), ②군총참모장(1986), ③국방부장관(1987) |
| 7 | 3 | 쩐득르엉 | ①지질 총국장(1982), ②국회과학기술위원장(1985), ③부수상(1987) |
| 8 | 4 | 응웬민찌엣 | ①송베성 성장(1988), ②빈증성 당서기(1996), ③호찌민시 당서기(2000) |
| 9 | 4 | 쯔엥떤상 | ①호찌민시 당서기(1996), ②당 경제위원장(2000), ③당중앙위 상임위원장(2006) |

<표 15>을 살펴보면 우선, 7명 중 5명(71%)이 지방 지도자 경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혁명 활동 이외 경력 없이 1945년 8월 혁명 직후 베트남민주공화국 수립과 동시에 정부수상 또는 장관 등에 임명된 호찌민, 팜반동 등 2명과 같은 예외적 사례를 제외하면 1세대 팜흥부터 4세대 현(現)정부수상 응웬떤중까지 5명 모두 지방 지도자 경력을 갖고 있다. 그 외에도 호찌민을 제외한 6명은 재무, 내무, 기획, 경제 등 관련 중앙 경력을 갖고 있다. 한편, 호찌민을 제외한 6명의 전·현직 정부수상은 모두 부수상의 경력을 갖고 있다.

26) 역대 국가주석의 경력은 국가주석에 선출되기 전 경력이며, 지방 경력은 성급 당서기장 및 성장 등의 성급 지도자 경력, 중앙 경력은 중앙 당·정 경력 등임.

<표 15> 역대 정부수상의 경력²⁷⁾

| 기수 | 세대 | 성명 | 주요 경력(임명 연도) |
|----|----|--------|---|
| 1 | 1 | 호찌민 | |
| 2 | 1 | 팜반동 | ①재무부장관(1945) ②정부 부수상(1949) ③외교부장관(1954) |
| 3 | 1 | 팜훙 | ①남부 임시위원회 서기(1946) ②당중앙위 서기(1958) ③남부중앙국 서기(1967) ④부수상(1976), 내무부장관(1980) |
| 4 | 2 | 도므어이 | ①하남성 당서기(1946) ②하이퐁시 당서기(1955) ③정부수상실 경제실장(1969) ⑤부수상(1969) |
| 5 | 2 | 보 반 끼엣 | ①호찌민시 당서기(1976) ②국가기획위원장(1982) ③제1부수상(1982) |
| 6 | 3 | 판 반 카이 | ①호찌민시 당 부서기(1985) ②국가기획위원장(1989) ③제1부수상(1992) ④국가재무화폐위원장(1992) |
| 7 | 4 | 응웬 쩌 쑹 | ①끼엔장성 당서기(1994) ②당 경제위원장(1997) ③제1부수상(1997) ④국가재무화폐위원장(1992) ⑤중앙은행 총재(1998) |

(출처: 베트남공산당 전자신문, <http://dangcongsan.vn>)

IV. 배경 상의 특징

1. 낄족 출신 남성

베트남의 역대 최고 리더들의 민족·성별 특징은 전체 인구의 약 87%를 차지하고 있는 낄족과 남성이 거의 100%를 점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 인구의 약 13%인 53개 소수 민족 중 최고 리더가 된 인물은 농득마인 전(前)당서기장이 유일하고, 전체 인구의 약 51%를 점하는 여성은 아직 단 명도 최고 리더에 선출되지 못했다. 따라서 베트남 최고 리더 인선에 있어서 민족별, 성별 인구비례에 의한 대표성은 크게 고려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더구나 유일한 소수민족출신 최고 리더인 농득마인 전 당서기장의 선출 배경²⁸⁾에 있어서 정치적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을 볼 때, 그가 민족별 인구비례에 의한 대표성에 의해 당서기장에 선출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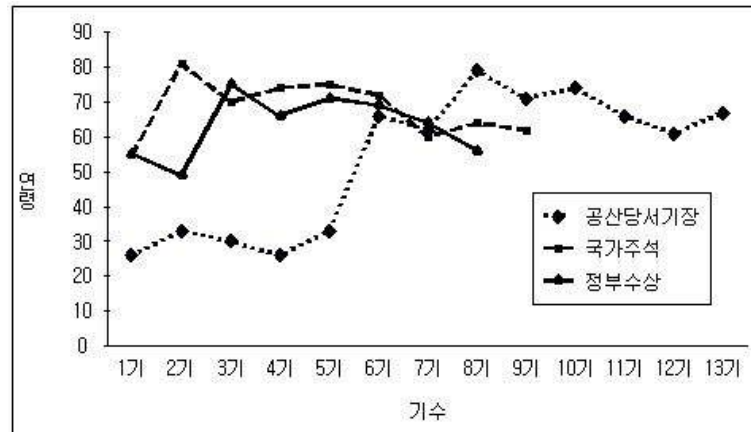
27) 역대 정부수상의 경력은 정부수상에 선출되기 전 경력이며, 지방 경력은 성급 당서기장 및 성장 등의 성급 지도자 경력, 중앙 경력은 중앙 당·정 경력 등임.

28) 농득마인 전(前)당서기장은 소수민족인 떠이(Tay)족 출신으로 목수(木手)에서 정치가로 변신해 베트남 최고 리더가 됐다. 그에게는 호찌민과 떠이족 가정부 사이에서 태어난 사생아라는 소문이 항상 붙어 다녔다. 소문에 의하면 호찌민이 베트남 북부 산간지역에 잠입, 독립운동을 하던 중 그의 시중을 들던 소수민족 여인과 사이에 농득마인을 낳았다고 한다. 그가 호찌민의 자녀라는 것이 사실인지에 관해 외신기자가 질문했을 때 농득마인은 “베트남 국민은 모두가 호찌민의 자녀”라고 대답했다.

2. 고령화에서 연소화로

베트남 역대 최고 리더들의 연령상의 특징은 급격한 고령화에서 점차 연소화 추세를 보인다는 점이다. 이는 <그림 1>에서 나타난다.

<그림 1> 역대 베트남 최고 리더들의 연령 추이



(출처: <표 1>, <표 2>, <표 3>을 토대로 저자 작성)

우선, 역대 당서기장의 경우, 1, 2세대 쩌엥찐, 응웬반린, 도므어이 등 3명은 각각 79세, 71세, 74세 등 70대의 연령에 당서기장에 선출됐으나 그 이후 3, 4세대 레카피에우, 농득마인, 응웬푸쥑 등 3명은 각각 66세, 61세, 67세 등 60대에 당서기장에 선출됨으로써 다소 젊어졌다.

역대 국가주석의 경우도 1, 2세대 푼득탕, 응웬호우토, 쩌엥찐, 보찌꽁, 레득안 등 5명이 각각 81세, 70세, 74세, 75세, 72세 등 80~70대의 연령에 국가주석에 선출됐으나 그 이후 3, 4세대 찐득르엥, 응웬민찌엣, 쩌엥편상은 각각 60세, 64세, 62세 등 60대의 연령에 국가주석에 선출됐다.

역대 정부수상의 경우 역시 2세대 팜훙, 도므어이가 각각 75세, 71세 등 70대에 정부수상이 됐으나 그 이후 3세대 판반카이는 64세, 4세대 응웬편중은 57세에 정부수상에 선출됐다. 1, 2세대 최고 리더들의 고령화는 1세대가 40~50여 년 동안 장기 집권함으로써 초래됐다. 특히, 호찌민, 레주언, 팜반동 등 3명이 25~32여 년 간 장기 집권한 결과, 1세대에서 2세대로 세대교체 됐을 때 2세대의 연령은 이미 70대였다. 그러나 2세대 이후 3, 4세대로 세대교체가 세대별 약 10년 주기로 비교적 신속히 이뤄졌기 때문에 4세대는 50~60대의 연령에 최고 리더가 될 수 있었다.

최고 리더의 연령은 2001년 제9차 당 대회 시 당 중앙위가 제정한 신임 당 중앙위 위원은 55세 정치국 위원은 60세를 초과할 수 없고, 재임 당 중앙위 및 정치국 위원은 65세를 초과할 수 없다는 내부규정(Nguyen Duy Quy 2012, 38)에 의해 베트남 최고

리더의 연령은 향후 50~60대를 꾸준히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3. 지역 편중 인사

역대 최고 리더들의 출신지를 살펴보면 당서기장은 북부에, 국가주석과 정부수상은 남부에 편중돼 있는 특징을 갖는다. 우선, 역대 당서기장 출신지의 북부 편중은 공산당 창당을 비롯한 혁명 활동이 북부 출신 인물들의 주도로 북부에서 이뤄졌기 때문이다.²⁹⁾ 즉, 북부 출신 인물들이 공산당 창당 때부터 지속적으로 당의 핵심 권력을 장악해 당 활동을 주도하며 당서기장 직을 독점해왔기 때문이다. 이는 공산당 창당 세대인 1세대로서 당서기장에 선출된 7명 전원이 북부 출신인데서 나타난다.

더욱이 1954년 베트남이 북부의 베트남민주공화국과 남부의 베트남공화국으로 분단된 이후 북부 출신 인물들의 당서기장 직 독점이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는 1954년 남북 분단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북부 출신 인사들이 100% 당서기장 직을 점하고 있는에서 나타난다. 여기에는 “공산당 창당과 사회주의공화국 수립을 주도한 북부 출신이 정통과 사회주의자로서 공산당의 정통성을 계승, 전수할 수 있다.”는 그러므로 “공산당의 당수는 북부 출신이어야 한다는 북부 순혈주의 의식이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학자 A와의 면담, 하노이 2013.01.04)

반면, 역대 국가주석의 출신지는 남부에 편중돼 있다. 이에 대한 원인 파악을 위해서는 우선, 남부 출신 최초 국가주석 푼득탕³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푼득탕은 제2차 인도차이나전쟁 중 호찌민 국가주석의 사망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당시 81세 고령에도 불구하고 북부 출신이 장악하고 있던 공산당³¹⁾에 의해 차기 국가주석으로 선

29) ‘청년’ 당원 중 적잖은 수의 공장 노동자가 소속돼 있던 북부베트남위원회의 대표단은 ‘청년’을 개조해 공산당을 조직하자고 주장했고 결국, 단독으로 공산당을 조직하기로 결의하고 1929년 6월 17일 인도차이나 공산당 창당을 선언했다. 새로이 성립된 공산당은 북부 하노이, 하이퐁, 남딘 등지에서 선전활동을 펼치며 조직을 확대해 나갔다. 이런 결과로 인도차이나공산당 세력은 점차 그 영향력이 중부와 남부에까지 뻗치면서 ‘청년’의 잔존 조직을 잠식해 들어갔다. 당시 공산당의 반식민주의 운동의 전면에 등장한 인물들은 주로 북부 출신으로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훈련을 받은 자들이었다. 한편, 1935년경부터 남부와는 달리 북부지방은 프랑스인민전선 정부의 정책에 의해 석방된 구(舊) ‘청년’계 공산당원들의 독무대였다. 이들은 각종 공산주의 관련 서적을 출판함은 물론, 신문을 발간해 사람들에게 사회주의 혁명사상을 고취시켰다.(유인선 2003, 341-351)

30) 푼득탕은 남부 메콩강 삼각주 지역의 안장(An Giang)성 출신의 기계공이었으나 1912년 사이공에서 노동자 파업참여로 해고된 후 프랑스로 갔다가 세계 1차 대전 당시 프랑스군에 강제징용 당했다. 그 후 1920년 귀국해 베트남노동조합을 창립하고 노동투쟁을 이끌다가 1927년 베트남청년혁명동지회에 가입했다. 1930년 베트남공산당에 가입해 호찌민과 함께 당을 이끌면서 1945년 8월 혁명으로 베트남민주공화국을 수립한 후 내무부장관, 국회의장, 국가 부주석 등을 역임하고 호찌민 사망 후 국가주석에 선출됐다.

31) 당시에는 당 조직 기반을 갖는 북부 출신 레주언(Le Duan), 군부기반을 갖는 북부 출신 보응웬지얌(Vo Nguyen Giap), 내각에 기반을 둔 남부 출신 팜반동(Pham Van Dong), 조국전선에 기반을 갖는 북부 출신 쩌엥찐(Truong Chinh), 비밀경찰을 장악하고 있던 북부 출신 쩌꾸옥호안(Tran Quoc Hoan) 등이 당을 장악하고 있었다.

출됐다. 그 후 그는 제2차 인도차이나전쟁의 승리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의 수립을 이끌면서 통일 베트남의 초대 국가주석에 선출돼 91세에 사망할 때까지 약 10년 7개월간 재임했다. 이는 퐁득탕의 공산당 내 입지가 매우 탄탄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리더십이 출중했음을 의미한다.³²⁾ 따라서 그의 국가주석 재임기간 중, 남부 출신 인사들의 공산당으로 진출 확대와 공산당 내 입지 강화가 이뤄졌을 것이라는 개연성³³⁾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대표적 사례로 응웬후토를 꼽을 수 있는데 응웬후토는 퐁득탕과 같은 남부 메콩삼각주 지역 출신으로서 퐁득탕의 국가주석 재임 기간 중 국가 부주석에 임명됐고, 퐁득탕 사후에는 약 1년 3개월 간 국가주석 권한대행을 맡았다. 그는 당시 국회의장이던 쯔엥찐이 차기 국가주석에 선출되자 국회의장과 국가 부주석을 겸직하면서 국회의장으로서 약 6년, 국가 부주석으로서 약 16년 3개월 간 재임했다. 그의 국회의장 및 국가 부주석 재임 기간 중 그와 같은 메콩삼각주 지역출신 팜홍과 보반끼엣 등 2명이 연이어서 정부수상에 선출됐고 그 외 남부 출신 보찌꽁은 쯔엥찐의 뒤를 이어 국가주석에 선출됐다. 그리고 그 이후 오늘날까지 남부 출신이 계속해서 국가주석에 선출되고 있다.

역대 정부수상의 출신지 역시 남부지역에 집중돼 있다. 특히, 남부 메콩강 삼각주 지역출신이 전체의 5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원인 파악을 위해서는 우선, 남부 출신 최초 정부수상 팜반동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1926년 중국 광저우에서 호찌민이 조직한 사회주의 교육과정에 참여한 후 호찌민이 지도하는 각종 활동에 공헌하면서 1945년 베트남민주공화국 정부의 재무장관, 제네바협정 대표단 단장, 외무장관, 부총리 등 직책을 역임하고 1955년 호찌민으로부터 정부수상 직을 승계했다. 그 후 그는 1987년까지 무려 약 32년 간 재임했고 그 이후에도 1997년까지 당중앙위 고문으로서 막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

팜반동은 역대 베트남 최고 리더들 중 최장기간 재임했는데 그의 오랜 재임기간은 그만큼 그의 리더십과 당내 지지기반이 강력했음을 의미한다. 특히, 그의 재임 기간 중 남부 메콩강 삼각주 지역출신 팜홍, 보반끼엣 등이 부수상에 임명³⁴⁾됐고, 남부 사이공 출신 판반카이는 호찌민시 인민위원장 및 당 중앙위원에 임명됨으로써 향후 정부수상이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³⁵⁾ 그 결과, 팜홍, 보반끼엣, 판반카이 등 3명 모두는 정부수상이 됐다. 특히, 최근 2, 3, 4세대 보반끼엣, 판반카이, 응웬떤중 등 남부 출신 3명이 22년 이상 연이어서 정부수상을 맡는 한편, 3, 4세대 판반카이, 응웬떤중 등 2명이 정부수상을 연임하는 추세를 볼 때 향후 정부수상 출신지의 남부 편중화 추세는

32) 호찌민은 퐁득탕을 “평생 혁명에 전심전력하고, 인민에 봉사한 혁명가로서 모든 혁명가의 도덕적 귀감이 되는 인물”이라고 칭송했다.

33) 국가주석은 헌법 제103조에 의해 국가부주석, 정부수상의 임명과 해임 건의 등의 권한을 행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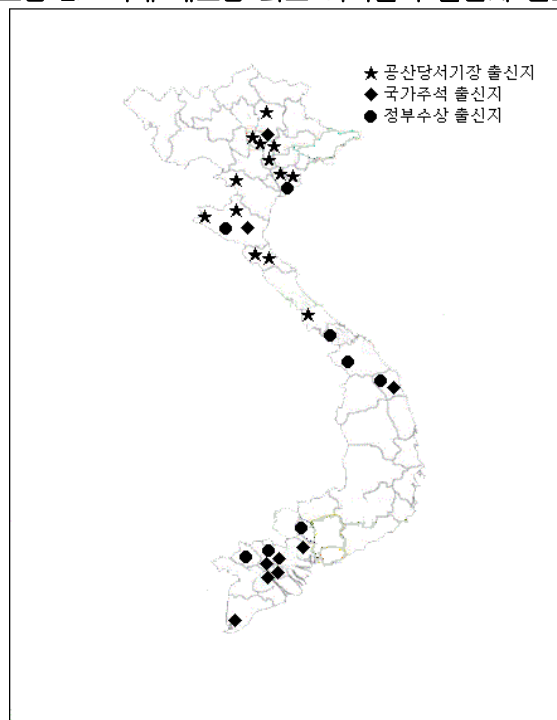
34) 정부수상은 헌법 제114조에 의해 부수상의 임명, 해임을 국회에 제출 및 비준하는 권한을 행사한다. 또한 성, 중앙직속시 인민위원장의 임명, 해임 권한을 행사한다.

35) 그 외에 퐁득탕, 보찌꽁, 쯔득르엥 등의 남부출신들 역시 부수상에 임명됨으로써 향후 국가주석이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술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당서기장 인선에 있어서 북부 편중인사와 국가주석, 정부수상 인선에 있어서 남부 편중인사는 지연(地緣)의 영향이 다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당서기장 출신지의 북부 편중화가 북부출신 당서기장 등장 이후 시작됐고 국가주석, 정부수상 출신지의 남부 편중화 추세 역시 툰득탕, 팜반동 등 남부 출신 국가주석, 정부수상 등장 이후 시작됐기 때문으로 최고 리더의 출신지에 따른 지역편중인사의 개연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 역대 베트남 최고 리더들의 출신지 분포도



(출처: <표 4>, <표 5>, <표 6>을 토대로 저자 작성)

실제로, “당서기장, 국가주석, 정부수상 등은 물론, 정부 각 부처 장관 및 각 지방정부 등등에서 권력 실세에 ‘셍항(xep hang)’ 즉, 줄서기 하는 것은 이미 오랜 관행”으로 “지연의 작용 역시 무시할 수 없다.”고 한다.(관료 B와의 면담, 호치민시, 2013.01.08)

4. 저학력에서 고학력으로

역대 최고 리더들의 학력은 고학력화 하는 특징을 보인다. 이는 시대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우선, 1, 2세대는 대부분 프랑스 식민지배 당시 농촌에서 태어나 정규교육을 받기 어려웠고 더욱이 청년기에는 혁명 활동 수행과 그

과정에서 프랑스 식민정부에 체포, 수감됨으로써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었다. 반면, 3세대는 8월 혁명 이후 베트남민주공화국에서 대학을 졸업할 수 있었고, 4세대는 제2차 인도차이나 전쟁 전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학사, 박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었다. 따라서 1, 2세대의 학력은 낮고 3, 4세대의 학력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한편, 역대 최고 리더들의 학력이 전반적으로 낮은 것을 볼 때, 학력은 그동안 최고 리더를 선출함에 있어서 주요 자격요건이 아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향후 상당 기간 동안에도 최고 리더 선출에 있어서 특정학교 출신들 간의 학연(學緣)이 작용할 수 있는 개연성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향후 혁명 후(post-revolutionary)세대의 최고 리더들은 정규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전문성을 갖춘 고학력자들로 구성될 가능성이 큼으로 고학력화는 점차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5. 연공서열 중시

최고 리더들의 제도적 배경에 있어서 특징은 당력으로서 입당 연도를 중시하는 것이며 그로 인해서 입당 순서, 즉, 연공서열에 따라 선출하는 것이 관행화 됐다는 것이다. 연공서열을 중시하는 것은 최고 리더 개인의 능력보다는 당에 대한 충성심을 더 중시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수십여 년 동안 당의 하부조직에서부터 꾸준히 당력을 쌓아 온 당원만이 최고 리더에 선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러한 관행은 그동안 베트남이 집단지도체제 하에서 당내 지도부 구성원들 간은 물론, 당원 간 꾸준히 결속력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으로 최고 리더들의 후임자를 선출해 올 수 있었던 기본적 배경이 됐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향후에도 최고 리더를 선출함에 있어서 연공서열에 따른 선출 관행을 무시하고 개인의 능력을 중시하는 파격적인 인사 조치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6. 지방 지도자 경력 중시

베트남 통일 이후 최고 리더들의 경력을 살펴보면 지방지도자 경력자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역대 당서기장들 중 1세대를 제외한 2세대 응웬반린, 도므어이, 3세대 레카피에우, 4세대 농득마인, 응웬푸쑹 등 총 4명 중 군(軍)출신 레카피에우 1명을 제외한 3명(75%)이 지방지도자 경력을 갖고 있다. 역대 국가주석들의 경우에도 1세대 3명을 제외한 총 6명 중 2세대 보쩌꽁, 4세대 응웬민찌엣, 쯔엥편상 등 3명(50%)이 지방지도자 경력을 갖고 있다. 역대 정부수상들의 경우 역시 1세대 3명을 제외한 총 6명 중 2세대 도므어이, 보반끼엣, 3세대 판반카이, 4세대 응웬떤중 등 4명(67%)이 지방 지도자 경력을 갖고 있다.

특히, 최근 4세대 전·현직 당서기장, 국가주석, 정부수상 등 6명 모두가 지방 지도자 경력을 갖고 있음을 볼 때, 오늘날 지방지도자의 경력이 최고 리더의 자격요건으로 매우 중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7. 국회의장, 호찌민시 당서기 경력 중시

최근 국회의장, 호찌민시 당서기 경력이 중시 되는 것 또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우선, 4세대 전·현직 당서기장 농득마인, 응웬푸쥔 등 2명의 경력을 살펴보면 모두 국회의장 경력을 갖고 있고, 4세대 전·현직 국가주석 응웬민찌엣, 쯔엥떤상 등 2명은 모두 호찌민시 당서기의 경력을 갖고 있다. 한편, 3, 4세대 전·현직 정부수상 판반카이, 응웬떤중 등 2명은 각각 호찌민시 당 부서기, 까마우성 당서기를 역임한 후 모두 국가 재무 통화위원장, 제1부수상을 역임했다.

최근 당서기장에게 있어서 국회의장 경력이 중시되는 이유는 2001년 헌법 개정³⁶⁾으로 인해 국회가 베트남 최고 권력기관으로 격상됐고, 그에 따른 국회의장의 위상 제고 및 역할 증대로 인해 베트남의 지도체제가 기존의 당서기장, 국가주석, 정부수상의 트로이카 3두 체제에서 국회주석을 포함하는 4두 체제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산당은 헌법 상 베트남 최고 권력기관인 국회의 수장인 국회의장 경력자를 당서기장으로 선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공산당이 국회의 상위 권력기구이며, 당서기장이 국회의장보다 상위 권력자임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국회를 확실히 통제하려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최근 국가주석, 정부수상에게 있어서 호찌민시 당서기 경력이 중시되는 이유는 베트남의 최대 경제도시 호찌민시 시정(市政)경험이 국가를 관리, 경영해야 하는 국가주석과 정부수상에게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공산당 일당 체제 하에서 상징적 의미가 있는 당서기장의 경우, 북부 출신으로서 정통 사회주의자 혈통을 갖고 있으며, 오랜 당력을 통해 공산당에 대한 충성심을 입증할 수 있으며, 국회의장으로서 헌법 상 국가 최고 권력기관의 수장이었다는 상징적 경력이 중시되지만, 실제로 국가를 관리,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국가주석, 정부수상에게는 현실적으로 호찌민시 당서기로서 베트남 내 최대 경제도시의 시정 경험과 제1부수상으로서 중앙 행정 경험 등의 실질적 경력을 더 중시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V. 결론

베트남 역대 최고 리더들의 배경을 총결해 보면 생물학적 배경에서 출신 민족은 낄족, 성별은 남성이며, 연령은 전반적으로 1, 2세대에서 고령화, 3, 4세대에서 연소화를 보인다. 출신지는 역대 당서기장 전원이 북부, 국가주석과 정부수상은 대부분 남부이다. 학력은 전반적으로 1, 2세대가 저학력, 3, 4세대는 고학력화를 보인다. 제도적 배경에서

36) 2001년 개정헌법 제83조에서 ‘국회는 인민의 최고 대표기관이며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의 국가 최고 권력기관이다. 국회는 유일한 입헌, 입법기관이다’라고 규정해 국회가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에서 최고의 권력기관임을 명시하고 있다.

세대별 입당 시기는 1세대 1925~1935년, 2세대 1936~1945년, 3세대 1946~1955년, 4세대 1956~1975년으로 나뉘지며, 재적연수는 1, 2세대에서 증가세, 3, 4세대에서 다소 감소세를 보인다. 경력은 역대 당서기장이 지방 지도자, 국회의장을, 국가주석이 지방 지도자를, 정부수상이 지방 지도자, 기획, 경제, 재무위원장, 부수상을 공통적으로 역임했다.

역대 최고 리더들의 생물학적 배경 상 특징은 첫째, 고령화에서 연소화로 전환이다. 고령화의 원인은 1, 2세대의 약 60년 간 장기집권과 호찌민, 쯔엥찐, 도므어이 등 3명이 당서기장, 국가주석, 정부수상을 겸직하거나 그 중 2개 직 이상을 역임했기 때문이다. 반면 3, 4세대의 신속한 세대교체로 50대 정부수상이 배출되는 등 최고 리더들의 평균 연령이 60대 초반으로 낮춰졌다. 둘째, 출신지의 편중이다. 역대 당서기장 총 13명 전원(100%)은 북부 출신, 국가주석 총 9명과 정부수상 총 8명 중 각각 7명(78%), 6명(75%)이 남부 출신으로 당서기장은 북부, 국가주석과 정부수상은 남부라는 지역구도가 형성됐다. 당서기장 출신지의 북부 편중은 북부 출신들이 공산당 창당부터 1, 2차 인도차이나 전쟁, 사회주의공화국 수립 등을 주도한 사회주의의 적통(嫡統)으로서 당의 정통성을 계승하고 당을 영도할 수 있는 최적격자라는 지역 순혈주의 의식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국가주석과 정부수상 출신지의 남부 편중은 남부 출신 최초 국가주석 푼득탕, 최초 정부수상 팜반동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지역 연고주의의 산물로 보인다. 이들의 재임기간 중 남부 출신 1, 2, 3세대가 국가 부주석, 정부 부수상 등에 인선됨으로써 그 후 국가주석, 정부수상에 선출될 수 있었고, 이를 계기로 남부 출신의 당내 입지가 강화된 결과, 국가주석 총 7명 중 6명(86%), 정부수상 총 6명 중 5명(83%)이 배출될 수 있었다. 셋째, 저학력에서 고학력으로 전환이다. 이는 1, 2세대 대부분이 프랑스 식민지배 하에서 십대 중후반의 어린 나이에 혁명 활동 수행과 그로 인한 체포, 수감으로 인해 정규교육을 받지 못한 반면, 3, 4세대는 식민지 해방 이후 안정된 상황에서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역대 최고 리더들의 제도적 배경 상 특징은 첫째, 오랜 당력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공산당이 개인의 능력보다 당에 대한 충성심을 중시하고 있기 때문으로 수십여 년 동안 당의 하부 조직에서부터 꾸준히 당력을 쌓아온 충성스런 당원만이 입당연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최고 리더에 선출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 받는다. 둘째, 대부분 지방 지도자 경력을 갖고 있는 것이다. 베트남 통일 이후 당서기장 4명 중 3명(75%), 국가주석 6명 중 3명(50%), 정부수상 6명 중 4명(67%)이 지방의 당서기 및 성장 등 지방 지도자 경력을 갖고 있다. 특히, 최근 3, 4세대 전·현직 당서기장, 국가주석, 정부수상 6명 모두는 지방지도자 경력을 갖고 있는데 이는 베트남 최고 리더의 자격요건으로 지방 지도자 경력이 중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국회의장, 호찌민시 당서기 경력을 중시하는 것이다. 최근 4세대 전·현직 당서기장 2명 모두는 국회의장의 경력이 있는데, 이는 2001년 헌법 개정에 따라 베트남 최고 권력기관으로 격상된 국회의 수장인 국회의장을 당서기장으로 선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공산당이 국회의 상위 권력기구이며, 당서기장이 국회의장보다 상위 권력자임을 천명하는 동시에 국회를 공산당의 통제 하에 두고자

함으로 사료된다. 한편, 최근 4세대 전·현직 국가주석 2명, 정부수상 2명 등 총 4명 중 3명이 호찌민시 당 서기 또는 부서기의 경력을 갖고 있는데, 이는 베트남 최대도시 호찌민시의 시정 경험이 국가주석, 정부수상 직을 수행하기 위한 능력을 갖추는데 있어서 훈련 과정상 필요한 경력으로 중시되고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전술한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차기 당서기장은 현재 북부 출신의 67세 국회의장 응웬신흥(Nguyen Sinh Hung)이, 국가주석에는 남부출신의 63세 레타인하이(Le Thanh Hai) 호찌민시 당서기, 정부수상에는 남부출신으로 호찌민시 부시장을 역임한 60세 응웬티엔년(Nguyen Thien Nhan) 부수상이 선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베트남 최고 리더의 고학력화, 지방 지도자 경력 중시 추세는 향후 베트남에서도 중국의 칭화방, 상하이방과 같은 특정 학교, 특정 도시 지도자 출신의 인맥이 형성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최근 호찌민시 지도자 출신 국가주석과 정부수상이 연이어서 배출되고 있는 상황을 볼 때 호찌민방(胡志明幫)은 이미 그 형성 초기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외에도 전·현직 최고 리더의 자녀들이 리더군(群)에 진입하는 경우 또한 발생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혁명 1세대 팜반동 전(前) 정부수상의 아들 62세 팜선즈영(Pham Son Duong) 인민군 소장(小將), 팜홍 전(前) 정부수상의 아들 57세 팜호앙하(Pham Hoang Ha) 빈중(Binh Duong)성(省) 부성장, 레주언 전(前) 당서기장의 두 아들 58세 레끼엔타인(Le Kien Tanh) 국회의원, 55세 레끼엔쥁(Le Kien Trung) 호찌민시 세관장, 레득아인 전(前) 국가주석의 두 아들 56세 레만하(Le Manh Ha) 호찌민시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48세 레시히엵(Le Sy Hiep) 정부수상 비서관, 농득마인 전(前) 당서기장의 아들 50세 농꾸옥뚜언(Nong Quoc Tuan) 베트남 민족위원회 부위원장, 응웬떤중 현(現) 정부수상의 아들 37세 응웬타인응이(Ngueyn Thanh Nghi) 건설부 차관, 응웬신흥(Nguyen Sinh Hung) 현(現) 국회의장의 조카 42세 쩌씨타인(Tran Sy Thanh) 박장(Bac Giang)성 당서기, 팜반끄영(Pham Van Cuong) 전(前) 외교부 장관의 아들 54세 팜빈민(Pham Binh Minh) 현(現) 외교부 장관 등이 있다. 이들 전·현직 리더의 자녀들은 ‘햇중도(hat giong do)’ 즉, 붉은 씨앗으로 불리며 향후 5, 6세대로서 베트남 최고 리더에 선출될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베트남에서도 중국의 타이즈당과 같이 혈연에 의한 리더군이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동안 1~4대 베트남 최고 리더들은 오랜 혁명과 전쟁을 수행한 혁명세대들로서 공산당 창당 이후 오늘날까지 오로지 공산당이라는 공식집단(formal group)의 구성원으로서 당력이라는 공통된 제도적 배경을 바탕으로 선출돼 왔다. 그러나 향후, 전후 세대(postwar generation) 또는 혁명 후 세대(post-revolutionary generation)는 공식집단인 공산당 이외에도 학연, 혈연, 정치적 출신지 등을 통한 비공식적 연고 집단의 비제도적 배경을 바탕으로 최고 리더에 선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러한 리더 선출 형태는 권력 세습 논란을 야기함으로써 향후 베트남공산당 일당체제를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 고 문 헌

- 유인선. (2003). 「새로 쓴 베트남의 역사」. 서울: 이산.
- 이한우. (2001). 베트남에서 점진적 개혁의 지속: 제11차 공산당대회 결과 분석. 「동남아시아연구」. 21권 3호.
- 조재현·송정남. (2003). 「베트남 들여다보기」.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 Bo giao duc va dao tao. (2004). *Giao trinh Lich su Dang cong san Viet Nam*. Ha Noi: NXB. Chinh tri quoc gia.
- Bo Noi Vu. (2012). *Vien Khoa hoc to chuc nha nuoc, Niem giam to chuc hanh chinh Viet Nam 2012*. Ha Noi: NXB. Thong ke.
- Do Quoc Sam. (2007). *Lanh dao va quan ly*. Ha Noi: NXB. Chinh tri Quoc gia.
- Nguyen Duy Quy. (2012). *He thong chinh tri nuoc ta*. Ha Noi: NXB. Chinh tri quoc gia.
- Nguyen Khanh. (2007). *Moi quan he Dang-Nha nuoc-Dan trong cuoc song*. Ha Noi: NXB.Chinh tri quoc gia.
- Nguyen Nhu Y. (1998). *Dai tu dien tieng Viet*. TP.HCM: NXB. Van hoa thong tin.
- Nguyen Sy Nong. (2007). *Phuong thuc lanh dao va doi moi, Phuong thuc lanh dao cua Dang*. Ha Noi: NXB. Chinh tri quoc gia.
- Pham Thai Viet. (2004). *Dai cuong ve van hoa Viet Nam*. Ha Noi: NXB. Van hoa-Thong tin.
- Vu Van Hien. (2007). *Xay dung doi ngu can bo lanh dao quan ly*. Ha Noi: NXB. Chinh tri quoc gia.

베트남 공산당 전자신문 <http://dangcongsan.vn>

투고일자 : 2013. 05. 15

수정일자 : 2013. 06. 11

게재일자 : 2013. 06. 25

국문초록

베트남 리더의 배경과 특징에 대한 고찰: 당서기장, 국가주석, 정부수상을 중심으로

김현재(영산대)

베트남이 세계열강들과 오랜 투쟁 속에서 독립과 공산주의 혁명을 쟁취할 수 있었던 데에는 무엇보다 베트남인들을 규합해 민족적 역량을 결집시키고 목표를 향해 이끌었던 리더(leader)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베트남 리더들은 1925년 베트남공산당의 전신(前身) 베트남청년혁명동지회(Vietnam Revolutionary Youth League) 조직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베트남의 해방, 통일, 사회주의공화국 수립을 이끌었고 그 이후 서방의 엠바고(embargo), 캄보디아 침공, 중월(中越)전쟁(Sino-Vietnamese War), 중앙계획경제체제(centrally planned economy system)의 실패, 구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 체제 붕괴, 도이머이(Doi Moi)개혁, 경제개방 등의 끊임없는 대내외적 난관 속에서도 공산당 일당체제를 굳건히 유지하면서 베트남을 안정적으로 통치해 오고 있다.

이는 베트남 정치리더의 탁월한 리더십의 결과로서 그들은 과연 어떤 사람인지? 그들의 리더로서 특징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의 인선(人選)기준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궁금증을 갖게 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트로이카 체제로 당(黨)·정(政)·군(軍)을 장악하면서 베트남을 이끌어 온 역대 당서기장, 국가주석, 정부수상 등 역대 최고리더들을 베트남의 대표적 리더로서 연구대상으로 삼고 그들의 성분으로서 생물학적 배경, 교육 배경, 제도적 배경 등을 살펴봄으로써 베트남 리더의 실체를 파악해 보기로 한다.

주제어: 리더, 리더십, 베트남 공산당,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베트남 국가주석, 베트남 정부수상